

# 박경리 1960·70년대 장편소설 연구

-가족관계의 갈등과 화해를 중심으로-

장미영\*

## 〈차례〉

1. 들어가며
2. 혈통주의의 함정과 훼손된 가족관계
3. 물질적 보상과 교환 가치적 가족관계
4. 생명의 자각과 가족의 재탄생
5. 나오며

## 〈국문초록〉

지금까지 박경리 문학에 대한 연구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초기 단편 소설과 몇몇 대표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작품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와 함께 각 작품의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박경리 문학의 전모를 통합적으로 살피는 것 또한 박경리 문학세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초기 작품에 드러나는 속악한 현실에 대한 결벽한 성격을 가진 여성인물의 저항과 『토지』에서 완성되고 있는 생명사상이 1960·70년대 중·장편 소설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가 밝히는 것은 박경리 문학의 일관된 세계관의 도출과 결국 문학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1960·70년대 발표된 박경리 소설에 드러난 표층 서사의 갈등은 멜로 드라마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심층적으로 인물들의 연애의 실패는 애정 문제에 국

\* 숙명여자대학교

한 된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 다층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경리의 1960·70년대 장편소설에 드러난 애정의 갈등과 해결과정은 대중소설의 관점을 넘어 가족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가족서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경리의 1960·70년대 장편소설의 가족 서사적 특성을 통해 가족 갈등의 원인과 해소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완전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명사상의 연속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핵심어: 멜로드라마, 연애의 실패, 가족 갈등, 혈통주의, 해소, 완전한 사랑, 가족의 의미, 생명사상

## 1. 들어가며

지금까지 박경리 문학에 대한 연구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사소설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초기 단편 소설과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파시』등을 비롯한 대표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작품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와 함께 각 작품의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박경리 문학의 전모를 통합적으로 살피는 것 또한 박경리 문학세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박경리의 초기작은 단편소설이 주를 이루다가 『표류도』<sup>1)</sup>를 시작으로 1960·70년대 25편 가량의 중·장편소설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는 박경리의 문학시기를 나누었을 때 중기에 해당하는 때로 발표된 중·장편소설들은 대체로 남녀 간의 애정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남녀의 삼각관계, 불륜, 선인과 악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인물의 대립, 성적 묘사의 노골화 등의 멜로 드라마적 대중 소설의 특성<sup>2)</sup>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 대

1) 김치수는 『표류도』(『현대문학』, 1958)을 최초의 장편으로 본다. 김치수, 『悲劇의 미학과 개인의 한』, 『박경리』, 조남현 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상에서 제외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박경리 문학의 총체를 밝히려는 입장에서 각 작품의 차별성을 밝히는 연구와 함께 전체를 유기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작품들에 연구<sup>3)</sup>가 다각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경리 문학의 정수인 『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한 삶에 대한 통찰과 주제의 변주는 각 작품에 대한 이해는 물론 박경리의 ‘생명사상’을 규명하는 데도 유효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작품에 드러나는 속악한 현실에 대한 결벽한 성격을 가진 여성인물의 저항과 『토지』에서 완성되고 있는 생명사상이 1960·70년대 중·장편 소설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가 밝히는 것은 박경리 문학의 일관된 세계관의 도출과 결국 문학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 발표된 장편소설의 경우 여성지와 일간 신문에 연재<sup>4)</sup> 된 것이 대부분으로 발표지가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성<sup>5)</sup> 또한 간과

2) 박경리의 1960·70년대 발표한 장편소설의 경우 표층적으로 연애 소설의 범주에 해당한다. ‘멜로드라마’는 사랑을 중심서사로 취택하므로 대중소설의 하위범주로는 ‘연애소설’에 해당한다. 김창식은 연애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사랑 또는 연애과정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② 연애 과정 자체를 이야기 전개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나 인물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③ 소설 속의 사랑이 인간 간의 깊은 이해나 화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 ④ 사랑에 관한 작가의 생각이 분명하고 진지하게 표명되어야 한다(김창식, 「연애소설의 개념」, 대중문학연구회편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8).

3) 고지혜, 「박경리 소설의 낭만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은경,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에 대한 태도와 정체성의 관련 양상」, 『국어국문학』 제146호 국어국문학회, 2007; 방은주,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장미영, 「박경리 소설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최수진, 「박경리 전쟁 체험 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문숙원,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소외양상 고찰: 196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등의 연구가 있다.

4) 전작으로 발표된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을 제외하고는 신문과 여성지에 연재되었다가 단행본으로 만들어졌다.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70년대 발표된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표층 서사의 갈등은 멜로 드라마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심층적으로 인물들의 연애의 실패는 애정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 다층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족<sup>6)</sup>관계 갈등<sup>7)</sup>으로 인한 것이다. 가부장적 혈통주의와 비정

『내 마음은 호수』 장편 『조선일보』, 1960.4.6~1960.12.31. 연재 269회.

『은하』 중편 『대구일보』 1960.4.2~5 연재.

『성녀와 마녀』 장편 『여원』, 1960.4~1961.3.

『푸른 운하』 장편 『국제신보』, 1961 연재.

『노을진 들녘』 장편, 『경향신문』, 1961.10.23~1962.7.1, 연재 250회.

『암흑의 사자』 중편, 『가정생활』, 1961.4~1962.

『김약국의 딸들』 전작 장편, 을유문화사, 1962.

『가을에 온 여인』 장편 『한국일보』, 1962.8.18~1963.5.31, 연재 239회.

『그 형제의 연인들』 장편 『대구일보』, 1962.10.2~1963.5.31 연재.

『재혼의 조건』 중편, 『여상』, 1962.11~1963.4.

『시장과 전장』 전작 장편, 현암사, 1964.

『녹지대』 장편 『부산일보』, 1964.6.1~1965.4.30 연재.

『과시』 장편 『동아일보』, 1964.7~1965.5.

『타인들』 장편 『주부생활』, 1965.4~1966.3.

『도선장』 중편 『민주신보』, 1965.

『신교수의 부인』 장편 『조선일보』, 1965.11.23~1966.9.13. 총 250회 연재(『영원한 반려』, 영서각, 1979).

『환상의 시기』 중편 『한국문학』, 1966 춘, 하, 추, 동(1970년 출간, 지식 10권).

『뱀새 族』 중편 『중앙일보』, 1967.6.16~1967.9.11, 연재 75회.

『겨울비』 장편 『여성동아』, 1967.11~1968.6 총 8회 연재.

『죄인들의 숙제』 장편 『경향신문』, 1969.5.24~1970.4.30 연재(나비와 영경귀, 범우사, 1978).

『창』 장편 『조선일보』, 1970.8.15(3면)~1971.6.15(5면), 총258회 연재.

『단층』 장편 『동아일보』, 1974.2.18~12.31 연재.

5) “196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매스 미디어는 급속한 상업화의 길을 걸었으며, 센세이셔널리즘과 쾌락주의, 소비주의에 치중하는 등 보도경향에 있어서 큰 후퇴가 있었다.”(추광영, 『제8장 1960~70년대의 한국의 사회변동과 매스 미디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256쪽.)

6) 권명아는 가족은 명확하게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구성된 실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족은 (단지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라는 범주화에 의해)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모든 것이다(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책세상, 2000, 14~15쪽).

상적인 부모의 삶은 그 자식의 대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낭만적 사랑<sup>8)</sup>을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운명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열망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안정적인 가족의 구성은 물론 삶 자체로부터 소외되고 만다. 이 때 남녀의 낭만적 사랑의 실패는 연애의 실패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박경리의 1960·70년대 장편소설에 드러난 가족은 한 인간의 출생 이후 성장의 과정을 비호해 주는 공간이자, 황폐한 현실에서 가장 따뜻한 힘을 주는 생명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억압적이고 식민지적인 공간이라는 양가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온갖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욕망들이 한데 모인 전쟁터이고, 사회집단을 상징하는 알레고리<sup>9)</sup>이기도 하다. 가족이 인간 존재의 출발점이자 토대라고 할 때 가족 간 갈등과 가치관의 대립은 사회변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동시에 작가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1960·70년대 장편소설에 드러난 애정의 갈등과 해결과정은 대중소설의 관점을 넘어 가족이테올로기에 대응하는 가족서사<sup>10)</sup>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7) 콜린스(Collins)는 가족은 양성과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는 곳으로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싸움을 방지할 수 없는 '갈등의 장'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김양희,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중앙대학교출판부, 1993, 46쪽).
- 8)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의식은 사랑의 종교적 성취로 결혼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의 주체에게 타자는 유일하고 특별하며 이상화 되고, 어떤 이의 삶을 '완성'해 줄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준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가치는 낭만적 사랑을 꿈꾸게 하는 기본 전제이다(재크린 살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11~34쪽).
- 9) 김현자, 엄경희,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 현대시', 『한국언어문학』 제51집, 2003, 460쪽.
- 10) 박경리 초기 소설의 가족 서사적 특징에 대해 이금란은 '박경리 초기 소설의 중심 테마 중 하나가 해체된 가족이야기다.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가 비어 있음, 혹은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서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인물의 가족 구성을 보면, 대부분 아버지·남편이 없는 불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변인물의 가족 구성의 경우 불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지적하고, '부계중심'이 아닌 '모계중심' 서사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이금란, 「가족 서사로 본 박경리 소설 연

박경리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의 의미와 생명사상은 역설적이지만 이들의 파행적인 관계로 인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갈등의 조정과 화해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된다. 이로써 박경리의 1960·70년대 장편소설의 가족 서사적 특성을 통해 가족 갈등의 원인과 해소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완전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명사상의 연속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 2. 혈통주의의 함정과 훼손된 가족관계

박경리 소설의 중심에는 가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가족 관계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 배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공동체적 운명의 성격을 띤다. 가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행, 불행은 개인의 차원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닌 가족 전체를 통어하는 주술적 믿음으로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대의 표상인 개인의 탄생<sup>11)</sup>은 박경리 소설에서 여전히 전근대적인 관계에 억압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가부장적 혈통주의는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키는데, 성인 남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결합이 결혼의 형태로 이어지고, 새로운 가족의 구성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결합은 전통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 때 가장 참여하게 대립하게 되는 가족구성원이 가문을 수호하는 아버지와 대를 이어야 하는 아들이다. 전통적으로 아들은 한 집안의 대를 잇고, 혈통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 결혼은

구-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9호, 2003, 317쪽).

11) 봉건 시대의 개인이 사회-장 속에서의 그 위치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름-자리(位)로서의 인간이라면 근대적 개인의 한 측면은 사회로부터의 절개(切開), 사회-장에 균열을 내는 빈 칸으로서의 인간이다(이정우·양일모, '근대적 개인의 탄생-일제하 소설들에서의 '주체'-', 『시대와 철학』 제17권 4호, 2006, 110쪽).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되고, 이 때 중요시되는 것이 집안과 혈통이 된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아버지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신분의 차이 혹은 혈통이 나쁘다면 부자 갈등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다.

『성녀와 마녀』는 안수영-오형숙-문하란 세 남녀의 애정 갈등이 중심 서사를 이룬다. 안수영과 오형숙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오형숙의 생모가 “무서운 탕녀의 피”<sup>12)</sup>를 가진 기생이었다는 사실과 ‘상놈의 자손’이라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아버지 안원석은 이들의 결합을 반대한다. 또 형숙과의 사랑을 반대하는 이면에는 안박사 자신의 젊은 날 과오에 대한 회한도 포함되어 있다. 안박사 또한 맹목적인 사랑에 갈등했던 경험이 있었다. 안수영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과 문하란과의 결합을 자신의 부모가 운명처럼 가정을 꾸렸듯이 자신도 그래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하란과 결혼을 하여 무미건조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던 중 실연의 상처를 안고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 온 오형숙과 재회 한 안수영은 둘의 열정적 사랑을 재확인하고, 가정을 등진 채 오형숙과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랑을 한다. 오형숙도 안수영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혈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악적인 생활을 하며 안수영과의 관계도 지속한다. 그러나 이 둘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륜관계일 뿐이다.

『성녀와 마녀』에서 형숙에 대해 보이는 안박사의 감정은 혐오<sup>13)</sup>라 할

12) 박경리, 『성녀와 마녀』, 현암사, 1968, 22~23쪽.

13) 혐오는 대상에게 끌리는 감정, 욕망과 반대로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감정이다. 시안 느가이(Sianne Ngai)는 끌림에 비해 “혐오는 급박하고 구체적”이며, 다른 감정에 비해 참기 어렵고 흔히 즉각적인 신체적 반응과 행동을 보인다. 심리학적 원인이나 과정 면에서 증오와 여러 부분 겹치고 대상을 향한 파괴적 감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혐오는 “더러움”이나 “오염”에 대한 거부감 회피, 공포에 가깝고 증오는 주체가 느끼는 “해”나 “악”에 대한 적대감, 분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혐오의 감정이 일으키는 불쾌감은 추함, 더러움, 비천함에 대한 거부감이다(Ngai, Sianne, *Ugly Feelings*, Cambridge: Harvard UP, 1982; Ahmed, Sara.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Routledge, 2004; 김미현, '혐오의 매혹-코맥 메카시의 『피의 자오선』, 2011년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미국학연구소 학술대회, 2014.2 재인용).

수 있는데, 이는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거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혐오를 주체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타자적 존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감정이라고 한다. 이 때 안박사의 거부는 혈통에 대한 추함, 더러움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인 동시에 안박사 자신이 형숙의 어머니에게 끌려 청춘을 허비했던 과거에 대한 혐오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반대에 주체적인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는 안수영은 자신의 감정도 가정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남자를 망치게 하는 탕녀의 핏줄이라 지탄받았던 형숙이 안수영의 목숨을 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결말은 가부장적 혈통주의 함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나는 죽는군요. 먼저……)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에 폭 쓸어지면서 형숙은 외쳤다. 그 목소리를 수영은 잊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죽는군요. 먼저……)<sup>14)</sup>

형숙이 죽게 생겼다는 이들의 전화에 ‘망할 놈! 기어이 계집 때문에 신셀 망치는구나. 내일이면 대문짝만한 기사가 신문에 나겠지. 그 꼴 좋다. 망할 놈!’<sup>15)</sup>이라고 중얼거리는 안박사의 태도는 혈통에 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공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결국 형숙의 죽음으로 애정 갈등이 종결되는 서사구조는 경직된 가족이데올로기가 애정 갈등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 지 보여준다.

저녁식사 때 가족은 실로 오래간만에 식당에 모였다. 수영은 형숙의 영상을 안고, 하란은 허세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이 상반된 인간과 인간이 모인 가정이라는 질서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대면을 하는 것이었다.<sup>16)</sup>

14) 박경리, 앞의 책, 181쪽.

15) 박경리, 위의 책, 179쪽.



안박사와 안수영, 안수영과 문하란이 부자갈등, 부부갈등을 끝내고 한 가정에 모여 '가정이라는 질서' 속에 편입하는 모습은 박경리의 가족에 대한 의미에 대한 반문이라 할 수 있다. 순수한 사랑을 전제하지 않은 가정과 가족 관계가 갖는 사회적 합의는 변화된 가족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가족이 개인적 영역인 동시에 사회적 구성체임을 드러낸다. 이 때 순종적이고 타율적이던 하란의 성격 변화와 수영이 가정에 복귀하는 과정은 전근대적 주체였던 가족구성원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유사한 혈통의 문제가 가문의 비극적 몰락으로 이어지는 작품으로 『김약국의 딸들』을 들 수 있다. 『김약국의 딸들』의 김약국은 '비상 목은 자식은 지리지 않는다.'<sup>17)</sup>는 저주와도 같은 주문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한 고독한 삶을 살아 온 인물이다. 김약국의 어머니 숙정은 불륜을 의심받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살하였고, 아버지 봉룡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김약국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사촌 누이 연순 이었고, 이들의 관계는 근친간 결혼을 금지하는 관습에 따라 현실적으로 맺어질 수 없다. 고독한 김약국은 가족과 화합하지 못하고 고립된 삶<sup>18)</sup>을 살게 된다.

소청이 집을 드나들며 부터 김약국은 마누라를 대하기가 거북하다. 이는 지 모르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마누라는 통이 말이 없어 더욱 어색하였다. 아들이 없으니 소실이라도 얻으라고 권하던 마누라인 만큼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김약국은 그 일을 마누라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소실이니 뭐니 하고 이름을 붙여서 소청이를 영구히 자기가지

16) 박경리, 위의 책, 183쪽.

17)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朴景利文學全集 11, 지식산업사, 1980, 37쪽.

18) 후에 김약국이 병에 걸렸을 때 '흔히 주색에 빠지고 방탕함으로써 인생을 좌되게 보낸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런 탕아의 좌절 이상으로 좌약적인,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를 위한 성문을 굳게 지켜온 이기적인 김약국이 지금 자기의 육체가 허물어져 가는 마당에서 어떤 마음의 반려자를 구할 수 있겠는가?'(212쪽)라며 가족에 대한 연민과 회한에 사로잡히지만 결국 가족에게 속마음을 드러내진 않는다.

고 싶은 마음도 내키지 않았다.<sup>19)</sup>

김약국은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실택과 부부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은 침묵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한실택이 아들을 낳지 못한 죄의식과 남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딸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실택에게 당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희생과 인고를 강요하는 이들 부부관계는 정상적인 부부가족 관계로 볼 수 없다. 다섯 딸과의 관계에 있어서 셋째 딸 용란이 머슴 한돌과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고 아편장이 연학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낸 것은 신분 차이에 대한 경직된 의식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용란은 물론, 한실택까지 목숨을 잃게 된다.

『단층』에서 한윤희도 자살한 생모에 대한 기억은 그녀의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든다. 『나비와 영경귀』의 강은식, 강은애 남매도 정신 병력을 가진 가문의 후손이라는 혈통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이들에게 발생한 혈통의 문제는 애정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닌 가부장적 시각을 가진 외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불행의 원인을 현재 속에서 찾지 않고 과거 유전적인 것으로 돌림으로써 인물들의 삶은 퇴행적일 수밖에 없다.

가부장적 혈통주의로 의해 가족관계 갈등이 발생하는 소설의 경우 부계중심의 가족서사 양상을 보이며, 가부장적 아버지에 의해 각 인물 간 갈등이 발생한다. 『성녀와 마녀』의 안박사, 『단층』의 정노인,<sup>20)</sup> 『김약국

19) 박경리, 위의 책, 125쪽.

20) 정노인과 아들 근태의 대립은 이 소설 시작 장면에서 부터 서사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건넌방을 가운데 두고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의 대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아들(尙太)는 벽을 등지고 앉아서 유달리 빛나는 눈을 더욱더 불태우며 분노의 독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정노인(鄭老人)은 안방에 목침을 베고 누워서 아들의 광기가 어느만큼 올랐는지를 음미하는, 조심성과 쾌감과 또한 한탄스러워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심정으로 대비하고 있었다.”(박경리, 『단층』, 林景利文學全集 18, 지식산업사, 10쪽)

의 딸들』의 김약국, 『과시』의 박의사<sup>21)</sup> 등 아버지의 군림으로 아들과 첨예한 갈등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며, 이때 아버지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아들과 화해를 통한 갈등의 해소는 불가능하다. 유교적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와의 대립은 윤리적 문제로 이어져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다.<sup>22)</sup> 결국 아버지와 갈등관계 속에 있던 아들은 일탈적인 삶을 살게 되고,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었던 여성인물은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편견이 폭력적이었음을 폭로한다.

가부장적 혈통의식은 과학적 근거와 개연성이 희박한 편협한 선입견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착으로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구성원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혈통주의를 고집하는 유교적 가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가족 서사는 주술적 믿음이 우연히 맞아떨어지고 파국을 치닫지만 중국에는 존재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혈통 때문에 혐오와 질시의 대상이 되고, 현실로부터 외면당하는 인물들의 파국적 삶은 ‘더러운 피’에 대한 징벌이 아닌 오히려 혈통주의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고발하게 된다.

전근대적 혈통을 기반으로 한 가족의 구성과 가족이데올로기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과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 가부장적 가문의식, 혹은 혈통주의와 달리 결혼이 물질적 보상과 교환 가치적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미 근대화의 산물로써 결혼제도의 변화는 예견되는 바이나 박경리 소설에서는 결혼 제도와 이에 따른 남녀의 결합은 인간존재를 물질화 하는 새로운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세

21) 『과시』의 박의사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 응주와 명화의 관계를 반대하고 결국 응주는 삶의 의미를 잃고 현실로부터 유리된 인생을 살게 된다.

22) 아버지에 맞설 수 없는 절망은 “자 자살이란 산 사람에게 대한 보 복습니다……복수란 말입니다. 히, 힘이 없을 때 내, 내 목에다가 구, 구멍을 뚫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그게 마지막 힘이거든요. 나,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란 내 목에다가 바, 바람 구멍을 내는 도리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라는 근태의 절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경리, 위의 책, 68쪽).

태 변화에 대한 작가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물질화 되어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 3. 물질적 보상과 교환 가치적 가족관계

박경리의 장편소설이 본격적으로 창작되고 발표되었던 1960·70년대는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또한 전쟁으로 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국가재건기로 가족이 집에 모여 재정비하고, 새로운 가정의 등장과 역할이 모색되었다. 동 시대에 전통적 가족관계가 급격한 산업화를 기반으로 자본주의화 되고 있는 모습은 사회 변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박경리 초기소설을 지배하고 있던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은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과 인간관계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초기 소설부터 지속되어 왔던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와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에 대한 탐색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불구적 가족관계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적응의 의미였다면, 1960·70년대 장편소설에 드러난 가족관계는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가족관계의 선택과 구성이 중심이 된다. 이전 시기 가족관계가 공동체적이고 운명적인 특성을 보여준다면 1960년대<sup>23)</sup> 이후 가족관계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조작과 돈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노골적으로 개입되고 있다. 이로써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족마저 경제 논리에 지배 받게 된다. 박경리는 이러한 시대의 사회구조 변동과 가치관 변화에 주목

23) 1960년대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은 문학에도 반영되는데 하정일은 1960년대 문학을 가능케 해 준 내적 요인으로 합리주의를 들고, 작가들이 각각 삶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을 합리적인 사고로 탐색하고 있는데 박경리는 '인간의 이기적 속물성'에서 찾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19쪽).

하고 있는 바 새로운 형태의 남녀의 결합과 결혼제도에 대한 의미를 애정갈등 소설을 통해 탐색하고 있다. 이 때 순응적이고, 타율적이었던 이전 작품과 다른 여성인물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여성인물이 보여주는 변화는 남성을 대리하는 여성의 모습에서 주체적인 여성상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노을진 들녘』의 송노인은 딸과 며느리를 불의의 기차사고로 잃고 손녀 주실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 주실은 문명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인물이다. 외사촌 오빠 윤영재의 근친상간으로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되는지도 모른다.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는 김서방댁 아들 성삼은 윤영재와 일을 협박하여 주실과 결혼을 하고, 송노인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 한다. 주실에 대한 마음도 인간적인 애정이 아닌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신분과 어려운 가정 형편을 벗어나려는 물질적 욕망이 앞서있다. 주실이 임신하게 되자 송노인은 영재의 일을 비밀로 하기로 하고 성삼을 받아들인다. 주실의 결합을 앞세워 결혼을 한 성삼은 주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며 송노인이 죽고 난 후 그 유산을 모두 자기 차지가 되면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방탕한 생활을 한다.

이미 재산에 대한 욕망으로 결혼을 한 성삼과 주실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성삼의 속셈을 알고 있던 송노인은 십여 년 동안 집안일을 돌봐 준 침모 영천댁과 서류상 혼인관계를 맺고 유산을 영천댁에게 주고, 영천댁이 죽게 되면 주실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하고 만다.<sup>24)</sup> 재산에 눈이 먼 성삼의 학대에 주실은 서울로 도망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실을 구해주려는 영재는 성삼을 안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음으로 주실에게 속죄한다. 송노인의 자살과 주

24) 송노인은 주실의 불행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고 주실을 위해 영천댁과 혼인 계약을 한 것이다. '송노인은 주실을 눈먼 송아지라 생각했다. (내가, 그 눈을 막았구나! 불쌍한 것! 발바닥에 피도 안 마른 그것을 늑대같은 그 놈에게 주었으니, 세상에 둘도 없는 그것 하나를……)' 송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두 줄기 죽 흘렀다 (박경리, 『노을진 들녘』, 박경리문학전집 2, 지식산업사, 1980, 235쪽).

실의 사산, 영재와 성삼의 죽음<sup>25)</sup>은 계산에 의한 가족 관계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인물의 죽음은 서사의 과정이자 작가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죽음에 대한 작가의 논평자적 해석과 그 죽음을 바라보는 주변인물의 반응은 인물의 가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각 죽음의 의미를 전달한다. 진심이 아닌 계산에 의한 인간관계는 이해(利害)가 소멸되었을 때 관계도 끝나게 된다.

그러나 성삼의 폭력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살던 주실이 성삼을 피해 서울로 도망을 가고, 새로운 사람 동섭을 만나 자신을 되찾게 되고, 송화리로 돌아와 건강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은 능동적 갈등의 해소이자 새로운 인간상의 모색으로 볼 수 있다. 동섭을 통해 인간에 대한 연민과 순수한 사랑은 참된 사랑의 의미를 보여준다.

주실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애처롭게 동섭의 눈을 찾는다. 자기 때문에 영재가 죽었다는 죄악감에서였다. 동섭은 그러한 주실을 감싸주듯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중략)... 동섭은 다시 초원을 바라본다.

『참 고은 놀이다. 양떼가 가는군.』

혼자 증얼거리며 돌아선 주실의 어깨에 얹은 손을 떼지 않았다.<sup>26)</sup>

『단층』에서 한윤희에게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우는 재산 때문에 한윤희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 결혼의 시작부터 이해타산적인 계산이 앞선 것이다. 탐욕을 바탕으로 한 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고 서로가 목적이 아닌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만다. 이상우와 유

25) ...영재의 죽음의 얼굴은 맑았다. 별로 외상(外傷)은 없는 듯했다.

저만큼 떨어진 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성삼이 쓰러져있었다. ...(중략)...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눈을 부릅 뜬 채 죽은 그의 처참한 모습에 사람들이 외면을 하였다. ... (박경리, 위의 책, 357~358쪽) 죽은 모습으로도 각 인물의 성품과 죽음의 의미가 드러난다.

26) 박경리, 위의 책, 360~361쪽.

사한 인물로 『창』에서 진우섭이 재산이 많은 줄 알고 결혼을 했다가 실망하고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헤어진 진우섭의 아내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인물을 통해서 결혼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한다. 인간 간의 신의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교환가치로서 결혼이 과연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육체적으로 병들고,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맹시애의 자기희생적 사랑과 그런 시애를 연민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섭의 관계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건강한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영원한 반려』의 신병구와 강철애 부부는 이기적으로 개인적 삶에 매몰되어 있는 신병구와 경제적 무능함을 대놓고 경멸<sup>27)</sup>하는 강철애 여사를 중심으로 책제목에서 드러나 있듯이 ‘영원한 반려’에 대한 의미를 되묻는다. 『영원한 반려』에는 현실적인 조건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사랑의 좌절에 자살을 선택한 신병구의 여동생 병희, 현실적인 조건과 경제력을 숭상하고 가족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강철애 여사를 혐오하는 신병구,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신병구와 병희를 비판하는 병옥 삼남매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애정갈등과 가족관계는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들 중에서 가족 관계를 도구적 교환 가치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신병구의 아내 강여사이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유능함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자본주의 사회의 속물적 중산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병희와 애정관계에 있으면서도 출세와 경

27) 강병구의 신경질적인 예민함에 대해서 “당신이 그리 잠 못 주무시고 해놓은 일이 뭐해요? 남들은 외국에 간다, 학위를 받는다 하는데 그동안 당신이 한 일은 뭐예요? 가족들만 못살게 굴면서 원고료 한푼 제대로 받아온 일이 있으세요? 당신은 자기 자신밖에 이 세상에 없는 줄, 그렇게 자부심에 가득 차서, 남이 인정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니예요? 정말 당신은 유행가 가수만큼이나 유명한 줄 아세요?”라며 경제적 무능함과 이기심을 질책한다(박경리 『영원한 반려』, 朴景利文學全集 20, 1987, 9쪽).

제적 지원을 받기위해 병희를 두 번이나 버린 성민수도 인간관계를 도구적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결국 성민수의 두 번째 배신으로 절망한 병희는 자살하고 만다.

병옥의 서사적 비중은 다른 인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박경리 소설의 새로운 인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결벽함과 타락의 중간에서 동시에 양면을 바라볼 줄 아는 병옥은 결벽한 인물과 타락한 인물 모두 반성적으로 조망하게 한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좌우하는 것은 없어요. 여자고 돈이고 모든 것이 말입니다. 빨리만 처리하면 ……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언제든 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거죠? 안그래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서죠. 그럼 그만 아니에요? 형님은 막힌 길을 뚫으려고 하니까 기진해서 나가떨어지는 겁니다. 가능에는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이 없다는 말도 한갓 호기에 지나지 않지만, 외곶의 불가능은 더 빨리 오거든요. 한곳을 봐야 물이 나온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죠.”<sup>28)</sup>

또한 병옥이 선택한 선자에 대해 물질적인 기준도, 절대적인 기준도 아닌 ‘평범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반려자’라는 조건은 새로운 결혼의 조건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조건이나 맹목적인 사랑의 몰입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 다수 인물들의 애정의 갈등과 가족 간 갈등을 통해 더 이상 결혼 혹은 남녀 간의 사랑이 이상적 허구의 세계가 아닌 현실에 건강한 뿌리를 내릴 때 서로를 구원하고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양 극단의 태도를 동시에 조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병옥이란 인물의 등장은 작가의 시선이 더 이상 결벽한 이상적 사랑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28) 박경리, 위의 책, 403쪽.



#### 4. 생명의 자각<sup>29)</sup>과 가족의 재탄생

『김약국의 딸들』에서 용빈을 만난 강극이 자신의 비극적 가족사<sup>30)</sup>를 얘기해 주며 용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은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시작을 시사한다. 김약국이 죽고, 용빈과 용혜가 통영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한발 내딛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시장과 전장』에서 지영은 속물적인 어머니와 남편과도 갈등관계 속에서 놓여있다. 가장 가깝게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 관계지만 어머니와 남편 기적이 보여주는 속물적 근성은 결벽한 성격의 지영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가족을 떠나 홀로 교사생활을 하기 위해 황해도 연안으로 떠난 지영은 홀가분함을 느낀다. 그러던 중 전쟁으로 남편의 기적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생존 본능을 드러낸다. 남편을 찾고, 어머니와 희, 광 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자각은 그동안 자신이 혐오했던 어머니와 기적을 인정하고 자신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한 행동도 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불태운다. 지영의 변화는 의식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생사의 기로에서 생존을 갈망하는 본능적인 생명에 대한 신성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29) “인생이든 예술이든 그 밖의 모든 것은 생성되고 사멸하는 영원히 미숙하고 미완의 상태다. 어떠한 이념도 변화하는 것이며 비교에 의한 선택 역시 어디까지나 한 시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며 완성은 종료를 뜻하고 완성이 없는 까닭으로 중단할 수 없다.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인 존재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것이며 삶을 지속한다는 것이다.”(박경리, 『불모의 시기』, 『가설을 위한 망상』, 나남, 2007. 26쪽)

30) “그러니까 딱 오래 된 얘기군요. 그것을 본 기억은 희미하지만 후일에 그 얘기를 몇 번 아니 수백 번이나 들었어요. 저의 아버지는 혁명가도 아니었고, 우국지사도 아니었었어요. 다만 부자였지요. 그 아버지가 왜놈들에게 타살된 거예요. 머슴이 시체를 말에 태워가지고 왔더군요. 지금은 아슴푸레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게 누이가 있었습시다. 그 누이가 지금 왜놈하고 살고 있던 말입니다. 어쩡습니까, 용빈씨 혼자만이 비극을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257쪽)

『창』의 맹시현은 불륜관계에 있던 가화를 만나기 위해 아내와 자식을 사지(死地)에 버려두었다는 죄의식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다. 맹시현은 사랑하는 남자와의 관계를 반대하는 남자 집에 불을 내 감옥에 들어갔다 병든 몸으로 나온 인물이다. 시현, 시애 남매는 모두 삶을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중 시애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진우섭을 만나면서 그를 위해 삶에 열망을 갖게 된다.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껴주는 진우섭을 통해 시애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시현은 건전한 삶을 살고 있는 선영을 통해 삶의 의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현실을 깨닫고 시애와 선영에게 재산을 남기고 홀연히 떠난다. 에필로그처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죽음에 관한 기사는 맹시현의 죽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맹시현의 죽음이 비극적이지 않은 것은 진우섭과 시애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들의 미래가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첫사랑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붙들려 퇴행적인 삶을 살던 인물들은 결혼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족이 되지 않더라도 과거가 아닌 현재, 현실에서 건강한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한다. 또한 시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김성애와도 가족<sup>31)</sup>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이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포용적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 『노을진 들녘』에서 주실과 동섭이 혈연, 사회적 지휘, 과거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영재의 약혼녀 수명 등과 가족적 관계를 유지하고, 집안일을 돌봐 준 박서방, 영천댁 등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가족 이상의 유대감을 유지한다. 송화리라는

31) 이 때 가족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혈연관계를 떠나 집합적인 표상을 지칭하며, 그것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담론을 통해 의미 있게 드러나게 된다.” 이는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과 공유를 중시한 개방적 의미이다(Jaber F. Gubrium & James A. Holstein, 최연실·조은숙·성미애 역, 『가족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하우, 2002, 21쪽).

폐쇄된 공간에서 서울로 이동, 다시 송화리로 돌아가는 동안 주실은 혈연적으로 지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 인간에 대한 호혜적인 사랑을 통해 절망적이었던 인물 주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비와 영경귀』의 정양구는 아내를 두고 남미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정양구의 아내 은애는 병든 남미에 대한 인간적 연민으로 정병구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을 우선하는 은애의 태도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의미로 표현된다.<sup>32)</sup> 은애의 이러한 태도는 남편 정양구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단층』에서 정근태와 명자의 관계는 이별 후 가족에게 복귀하는 새로운 예가 될 것이다. 근태와 명자는 불륜관계이지만 둘 사이에 아들이 있다. 근태의 아버지 정노인은 명자의 아들 기표를 장자라는 이유로 데려가 키운다.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한 명자를 구원할 방법은 근태 자신이 아닌 아들 기표를 돌려주는 것이다. 근태가 본가로 복귀하여 온전한 가족을 유지하듯이 명자에게 아들 기표를 돌려줌으로써 명자에게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남녀 간의 맹목적인 사랑을 초월한 인간으로서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인생을 책임지는 성숙한 태도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결국 감정에 매몰되어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상처만 남기게 된다. 『영원한 반려』의 신병옥과 선자의 결합처럼 현실적인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반려자의 선택은 산업화, 자본주의로

32) 「사람을 믿는다면 그 믿음만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설령 애정이 없는 존경만으로도. 괴롭겠지요. 견딜 수 없겠지요. 하지만 어떤 결함이 있다 해도 최소한 휴머니티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없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박경리, 『나비와 영경귀』, 519쪽) 남녀 간의 사랑이 낭만적 사랑을 초월한 휴머니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물질적 교환가치의 수단이 되는 시대에 인간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중략)... 어느 편을 보든지 선자는 다방에 남겨놓고 온 그 아가씨에 비하여 떨어진다. 선자 역시 별로 두드러진 미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병옥은 그 선택을 지금에 와서는 조금도 망설이고 있지 않았다. 선자 편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병옥의 이기심이기도 하려니와 역시 격식이 게재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일 것이다.<sup>33)</sup>

병옥은 위선적이고 계집 덕에 출세하려는 자신의 따귀를 때린 선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병옥은 선자가 자신의 뺨을 때린 것은 선자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병옥에 대한 친밀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심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떤 조건으로 대신할 수 없는 진심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장편소설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의 탄생 과정을 통해 기존의 가족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이데올로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때 남녀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도, 소녀적 사랑도 아닌 건강한 성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성숙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박경리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혈통주의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과 근대화의 흐름 속에 가장 가족관계마저도 속물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작품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근대화에 따른 가치 전도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박경리는 생명을 소외시키는 인물에 대한 비판과 생명을 우선시 하는 인물을 대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생명사상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분절되어 나타나기 보다는 시대적 변동과 환경의 변화는 수용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엄성 추

33) 박경리, 『영원한 반려』, 335쪽.

구는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가족이 중심에 있는 것은 새 생명의 탄생과 지속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5.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 본 박경리 1960·70년대 장편소설에 나타난 가족 관계 갈등은 혈통주의를 지향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거나, 자본주의화 하는 사회 변동에 따른 이기적 선택이거나 순수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박경리 초기 단편 소설에 드러난 가족 갈등은 전쟁으로 인한 불구적 가족 관계를 어떻게 수용하고 회복하느냐에 맞춰져 있었다면, 중기 장편 소설에서는 개인의 감정을 중심에 두고 벌어지는 애정갈등을 통해 가족 서사로 나아가고 있다. 이 시기 발표된 장편소설이 멜로 드라마적 로맨스를 서사의 표층구조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남녀의 애정이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애정의 결과로써 결혼에 이르기까지 가족 서사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족이데올로기가 사회변동에 따라 구성된다는 점을 전제할 때 각 작품별, 시기별 서사에 드러나는 가족 서사는 개인 남녀 간의 낭만적 사랑의 탐색인 동시에 가족, 결혼제도와 가족이데올로기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리라 본다.

표층 서사에서 드러나는 통속적 서사 구조는 피해해가는 남녀 인물의 몰입과 이해를 높이는 장치로서 기능하며 심층구조에서 벌어지는 가족 갈등은 온전히 자유로운 인간 존재에 대한 억압이 서로의 감정적인 불일치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차원에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들 인물이 보여주는 파행적인 관계와 낭만적 사랑은 남녀의 성적 욕망이 아닌 존재의 구원을 통해 완성된다. 이들 인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을 구속하고 있던 가정으로부터 탈출했을 때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가출이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

하게 보여준다.

박경리의 1960·70년대 장편소설 속 인물들이 갈등의 끝에서 만난 현실과 타협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혼제도와 가족관계에 대한 작가의 물음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상화 되거나 도구화 된 인간관계는 지속될 수 없으며 서로에 대한 연민과 순수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때 구원은 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건강한 생명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져 의식이 아닌 현실에 뿌리내리게 된다. 초기 단편소설에서 보였던 소녀적, 감상적 사랑의 맹목적성은 건강한 삶에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자각은 현실에 근거한 성숙한 사랑으로 변모되고 있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에서부터 중심 주제였던 ‘가족’에 대한 탐색은 결백한 성격의 여성 인물을 통한 사회 비판과 생명의 자각을 통해 사적 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적 영역의 가족은 사회 구조 변동에 따라 개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 출현을 예고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가족구성을 방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이고 이타적 ‘사랑’의 의미와 포용적이고 확대된 ‘가족’의 개념은 인간 존재 탐색으로 이어져 건강한 생명의 자각과 광의의 ‘가족’ 개념을 낳게 된다. 이후 『토지』에 이르러 인간존재의 존엄성,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총체적으로 ‘생명사상’으로 수렴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경리, 『내 마음은 호수』 박경리문학전집 17, 지식산업사, 1982.  
 \_\_\_\_\_, 『성녀와 마녀』 박경리문학전집 12, 지식산업사, 1980.  
 \_\_\_\_\_, 『푸른 운하』 박경리문학전집 21, 지식산업사, 1988.  
 \_\_\_\_\_, 『노을진 들녘』 박경리문학전집 2, 지식산업사, 1979.

- \_\_\_\_\_, 『김약국의 딸들』 박경리문학전집 11, 지식산업사, 1980.
- \_\_\_\_\_, 『가을에 온 여인』 박경리문학전집 13, 지식산업사, 1980.
- \_\_\_\_\_, 『시장과 전장』 박경리문학전집 10, 지식산업사, 1979.
- \_\_\_\_\_, 『녹지대』 장편 <부산일보> 1964.6.1~1965.4.30 연재.
- \_\_\_\_\_, 『파시』 박경리문학전집 3, 지식산업사, 1980.
- \_\_\_\_\_, 『타인들』 박경리문학전집 9, 지식산업사, 1980.
- \_\_\_\_\_, 『영원한 반려』 박경리문학전집 20, 지식산업사, 1987.
- \_\_\_\_\_, 『환상의 시기』 박경리문학전집 10, 지식산업사, 1980.
- \_\_\_\_\_, 『나비와 영경귀』 박경리문학전집 22, 지식산업사, 1989.
- \_\_\_\_\_, 『창』 박경리문학전집 10, 지식산업사, 1980.
- \_\_\_\_\_, 『단층』 박경리문학전집 10, 지식산업사, 1986.
- \_\_\_\_\_, 「불모의 시기」, 『가설을 위한 망상』, 나남, 2007.

## 2. 단행본 및 논문

- 고지혜, 「박경리 소설의 낭만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책세상, 2000.
- 김미현, 「혐오의 매혹-코맥 메카시의 『피의 자오선』」, 2011년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미국학연구소 학술대회, 2011.4.2.
- 김양희,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중앙대학교출판부, 1993.
- 김은경,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에 대한 태도와 정체성의 관련 양상」, 『국어국문학』 제146호 국어국문학회, 2007.
- 김창식, 「연애소설의 개념」, 대중문학연구회편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8.
- 김치수, 「悲劇의 미학과 개인의 한」, 『박경리』, 조남현 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 김현자, 엄경희,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 현대시」, 『한국언어문학』 제51집, 2003, 459~489쪽.

- 문숙원,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소외양상 고찰: 196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방은주,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금란, 「가족 서사로 본 박경리 소설 연구-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9호, 2003, 313~334쪽.
- 이정우/양일모, 「근대적 개인의 탄생-일제하 소설들에서의 '주체'-」, 『시대와 철학』 제17권 4호, 2006, 105~136쪽.
- 장미영, 「박경리 소설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재크린 살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 추광영, 「제8장 1960~70년대의 한국의 사회변동과 매스 미디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231~271쪽.
-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 Jaber F. Gubrium & James A. Holstein, 최연실·조은숙·성미애 역, 『가족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하우, 2002.
- Ngai,Sianne, *UglyFeelings*, Cambridge: HavardUP, 1982; Ahmed,Sara.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York: Routledge, 2004.



## Abstract

### A Study of Park Kyung-Ri's Novel in 1960-70's

-Conflict and Reconciliation in the Family Relationship-

Jang, Mi-young

The study on Park Kyung-ri has been focused on "Land" with the early short stories and some well-known novels. Based on the intertextuality of each work, however, it should be necessary to study the integrity of the whole picture of her works in order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her work. It is possible to search for her ultimate goal or intention to reveal through studying how both a fastidious woman's resistance against the secure world in the early works and the idea of the life in "Land" are related to novels in the 1960's and 70's.

Although the narration of the 1960-70's novels has the traits of the melodrama, the failure of lov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s occurs in the various levels not just in the matter of affection. The understanding of love conflict and its solution should be required to know the family narration corresponding to the ideology of the Family. The parent's life made by adhering the patriarchal principle of pure-blooded gives the bad influence on their children who fail in their attempt to ensure their own dignity and to free from their destinies. Therefore, those who look for love lose the dream of making the family and become isolated from the life itself. That means the failure of romantic relationship is directly related to the destruction of one's life.

Consequently, this study not only defines the meaning of perfect love and of family, but also it explores the continuity of the ideal of the life between the 1960-70's novels and "Land," through investigating how people undergo the family conflict and try to solve it.

Key words : melodrama, failure of love relationship, family conflict, the principle of pure-blooded, perfect love, meaning of family, idea of the life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